

2024학년도

삶의 기쁨을 재미있게 배우는

• 옥산배움터 학부모 연수자료 •

2024년 3월 20일 (수)



옥 산 초 등 학 교

연 수 목 차

1. 2022개정교육과정의 이해	1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2
3. 아동학대 예방	4
4. 장애공감 및 통합교육의 이해	5
5. 가정폭력 예방	7
6. 인권교육	8
7.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0
8. 양성평등교육	11
9. 약물오남용예방교육	13
10. 성폭력 예방	15
1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17
12. 학교폭력예방교육	21
13.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23
14.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26
15.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7
16. 도박예방교육	28
17.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30
18. 학생평가 및 결과 제공·이의신청 방법	33
19. 교직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34
20.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36
21.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전체 시간표	37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1. 2022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
-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책임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
- 디지털·AI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초등학교)

1.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개선	2. 안전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초기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습 토대 마련 및 심리·정서적 도움 제공(1학년)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 시수 확대(3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생활' 내용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화(64시간) ※바른생활(16시간), 슬기로운 생활(34시간), 즐거운 생활(16시간) 교과와 연계한 생활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운영
3. 신체활동 강화	4. 진로연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 활동 강화 ※즐거운 생활 교과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 반영(1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 학년으로 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한 교육(전학년) 자유학기 프로그램 맛보기, 중학교 생활 이해 교육(6학년) 교과별 진로교육 강화
5. '학교자율시간' 도입(2025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계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 운영(3~6학년 해당)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교과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 개설 가능 (단,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절차 준수) 	

2.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자료 안내]

- 에듀넷티클리어-교육정책-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공교육 정상화법

-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공교육정상화법」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학교 책무성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4. 관련 Q&A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 자기 파괴행동 등

3.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가. 1 STEP

-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2)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3)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4)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1)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2)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1)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 3) 피해아동 및 가정에 서비스 지원하기
- 4)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5)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112)**

장애공감 및 통합교육의 이해

1. 통합교육과 사랑반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2. 통합교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물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① 또래와의 상호작용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②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③ 자존감 향상

④ 연령에 맞는 폭 넓은 교육

-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리교육에서 누리기 힘든 폭 넓은 교육을 통합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③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웁니다.

④ 인권감수성의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권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느껴 인권감수성 향상의 기회를 가집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 4. 11 시행)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p>고용(제10조, 제11조)</p> <p>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교육(제13조, 14조)</p> <p>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p> <p>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금지 (제20, 제21조)</p> <p>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됨.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p> 
<p>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p> <p>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괴롭힘의 금지(제32조)</p> <p>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p> 

4. 장애에 대한 공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감춰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나의 장애를 주변 어른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마음이
 '장애'를 평범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다른 말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가.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다.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 둡니다.

라.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가.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위기 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자녀와 함께 생활, 학습지원(비밀전환), 자립지원(취업연계)

다. 가정폭력상담소: 평일 9:00 ~18:00 정기적인 상담,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라. 기타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건강가정센터(1577-9337)

인권교육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가. 생존권

생존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계절에 맞는 의복,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나. 보호권

보호권은 아이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 즉 학대와 방임,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 우울, 비행,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발달권

발달권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여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라. 참여권

참여권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듯이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님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감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매일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정작 부모 자신에 대한 투자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아이 못지않게 자신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보다는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 신뢰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숨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부모님들은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해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야,.....했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 가.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 나.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 다.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가정에서 대처방법



- 가.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나.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다.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라.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마. 자녀 칭찬 10계명
 - 1)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2)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3)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5)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6)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7)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8) 일의 진척 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9)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10)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거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양성평등이란

- 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차단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차별이란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나. 성차별의 사례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가.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나.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다.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라.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 마.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바.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사.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아.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자.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 차.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 하는데 있다.

4.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생각들

- 가.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나.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다.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라.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5. 양성평등한 자녀교육이란

- 가.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 나.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 라.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마.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바. 어렸을 때부터 딸과 아들에게 예술이나 체육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웁니다.
- 사.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아.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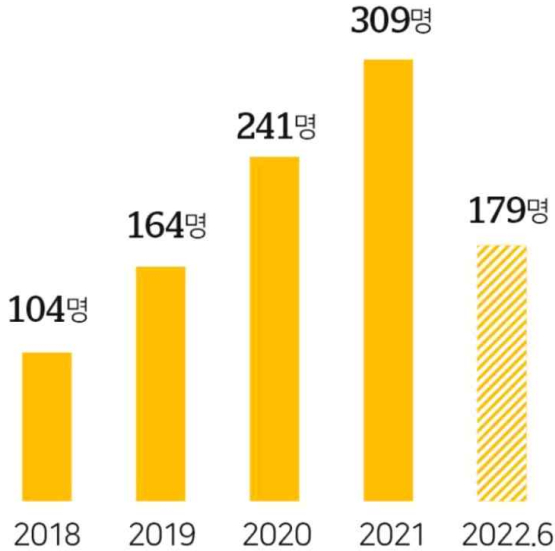
6. 평등가족 5계명

- 가. 항상 좋은 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주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나. 집안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며 휴식도 함께 취합니다.
- 다. 가족 모두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 라. 가족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마.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구촌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 ▶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양성평등의식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국민 화합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



자료: 경찰청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국한되었던 마약이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고 심지어 10대·20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적발된 15세 미만 마약사범도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 마약이란(WHO 정의)

- 1)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함.(의존성)
-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내성)
- 3)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남.(금단증상)
-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

나. 최근 발생한 10대 마약 사건

- ▶ 고등학생 3명이 범행을 공모하여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본 수법을 활용해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
- ▶ 충북 음성군 10대(18세) 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환각 버섯'을 집에서 재배해 캡슐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다 적발
- ▶ 2022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

다. 약물 구입 경로

- 1)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구입
- 2) 마약 금액을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판매책이 지하철 물품보관함, 건물 환풍구, 에어컨 실외기 등 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좌표를 알려줌(일명 '던지기' 수법)
- 3)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경우 청소년들은 메신저를 통해 펜타닐을 처방받는 방법이나 펜타닐을 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 등을 공유
- 4) 클럽 등에서도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음

라. 약물중독이 청소년에게 유독 위험한 이유

- 1) 처음 약물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약물을 남용하는 기간이 길어짐
- 2) 어린 시절의 약물 남용 습관은 상습적인 약물 남용자가 될 가능성을 높임

마.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 1) 약물 사용에 대한 또래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 지금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 정보의 한 원천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 2)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을 가지고 다음 활동들을 같이 해봅니다.
 - 자녀가 미래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고 목표를 위한 여정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 음악,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에 나타난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비판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이 마약으로 병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관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최근 사례



✓ 펜터민(식욕억제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최근 청소년들이 1알에 5~6천원에 재판매를 하다 검거



✓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로, 학교 화장실 등에서 흡입하다 검거

성폭력 예방교육

1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디지털성범죄 유형

-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하여 성적으로 이용)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2

성폭력 예방 준수사항 : 자녀와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 (2)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많다.
- (3)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이용해서 다닌다.
⇒ 혼자 다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 둘 이상,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 (4) 자신 있게 행동해라.
- (5)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하라.
- (6)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한다.
- (7) 위급한 상황일 경우 집기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1)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적발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 등을 알고 현재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 (2)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 (3)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No”가 존중되는 경험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많은 대화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 (4) 자녀에게 성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5)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상담기관을 찾아갑니다.

4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1) 침묵을 동의로 생각하지 말아라.
- (2)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10월17일 시행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등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 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학생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고소·고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교사가 원하면 관할청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후로도 계속·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함
-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교육부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 발췌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 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3.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 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학교폭력 신고·상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
|---|--|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2. 피·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3.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주요 안내사항

1.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2024학년도 변경 내용)

- 사안 접수 보고서 내용 검토 및 분석(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정**(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면담] 실시)
- > 필요시 관련 학생 보호자와의 면담 진행 가능

2. 학교폭력 접수 시 가해·피해 추정학생 분리

- 사안을 인지한 경우, 가해·피해 추정 학생 지체없이 분리(최대 7일 이내)
- **2호 접촉금지 의무 시행**

3. 관계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관련 학생 학교 생활 정상화·적응 지원
- 학교폭력조정지원단과 연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방과 후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종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학생 ·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1.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가. 촌지란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2.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 출·모금하는 행위
- 2)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3)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4)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1.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3.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4.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도박예방교육

1.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안내

□ 청소년 도박으로 2차 피해 발생 심각

<최근 관련 방송·보도기사>	<최근 성행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 간 고리사채까지 생겨난 청소년 도박(대전일보 2019.08.21.) ② 온라인도박 빠져 350만원 빚...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오마이뉴스 2019.07.27.) ③ 감언이설·호기심에 끌려 도박의 늪...학업부진 넘어 빚더미 올라갔기도(세계일보 2019.07.13.) ④ '도박중독 치료' 이용 청소년 3년 새 6배 증가(헤럴드경제 2019.07.07.)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달팽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다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로하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파워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소셜 그래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불법 스포츠 도박</p> </div> </div>

- 도박자금 관련 대리입금, 학생 간 고리사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도박자금 마련 2차 피해>
<p>① 대리입금(줄임말-덜입)</p> <p>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 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을 빌려 주고 1주일 후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연 1,500%이상,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 이하) -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p>② 친구들간 고리 금전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수고비)로 3만원을 떼고 7만원을 대출 후 1주일 뒤 15만원 상환 요구. 약속된 1주일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간당 과금 부과. - 친구들간 법정최고이자(연 24% 이하)를 훨씬 뛰어넘는 이율 적용,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짐 <p>③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도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친구의 계좌를 빌려 대리베팅을 하는 사례 - 불법도박 운영에 가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친구나 후배들을 강제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 <p>④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

□ Q&A

청소년도 도박을 하나요?	청소년 도박 처벌받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재학 중 청소년 6.4%(14만명)가 도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도박문제로 상담 받는 청소년 인원이 3년새 6배로 증가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도박,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처벌수위(구속, 기소유예 등)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금액,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리입금 이용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대리베팅, 강제베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 →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이 통보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은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 교내의 경우 선생님이나 신고함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교외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 스마트폰앱(117 chat), 해당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처법

-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세요!
- 자녀의 **행동**에서 아래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 도박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자녀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금전, 학업, 교우관계** 등)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국번없이 1336)**을 신청하십시오.

헬프라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36)



온라인 상담(도박문제 네티라인)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안내

1. 나이스 학생 서비스 안내

가. 나이스 학생서비스 제공목적

- 학생서비스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급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나이스 학생서비스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방법

나이스대국민 사이트 접속	인터넷브라우저를 이용하여,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회원구분(만 14세 미만,만14세 이상)에 따라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게 선택한후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생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학생용 인증서 발급	학생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keris.signgate.com)에 접속하여 학생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학생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메뉴에서 등록합니다
학생서비스 이용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후,학교생활 정보를 언제,어디서든 확인할수 있는 나이스 학생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https://www.onepas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디지털원패스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로그인 → '나의 서비스' 클릭 → '이용서비스 변경하기' 클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선택 → '동의' 클릭 → '변경' 클릭 → '확인' 클릭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의 나의 서비스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추가되었다면,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턴, PIN	▶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

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제공목적

- 학부모서비스는 열람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간 상호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상

-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 학교급 자료 열람은 불가하오니 민원서비스를 통한 교육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나이스 대국민 사이트 (www.neis.go.kr) 에 접속합니다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원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접속 후 학부모 서비스를 선택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등록' 메뉴에서 학부모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유중인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발급/등록'메뉴에서 등록합니다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후, 학교생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 신청 필수)

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이용방법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https://www.onepas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다음 절차에 따라 디지털원패스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사이트 로그인 → '나의 서비스' 클릭 → '이용서비스 변경하기' 클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선택 → '동의' 클릭 → '변경' 클릭 → '확인' 클릭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추가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의 나의 서비스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가 추가되었다면,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도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보안수준)에 따른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 (보안수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로그인 형태(제공 서비스)
보안수준 높음 :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안면, 패턴, PIN	▶ 인증서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보안수준 낮음 : SMS(문자), 패스워드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디지털원패스 인증수단은 추후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평가 및 결과 제공·이의신청 방법

1. 평가계획 안내 및 연수

교과 학습 평가계획은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 특성 고려하여 학년군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장이 승인한다. 또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계획에는 각 학년(교과)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성적처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 평가의 이해를 위하여 학기 초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서면 연수 가능)

2. 평가 운영

- ① 학급의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는 교과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② 교과학습 평가는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며, 관찰평가, 구술평가, 선택형 평가,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자기평가, 상호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평가 결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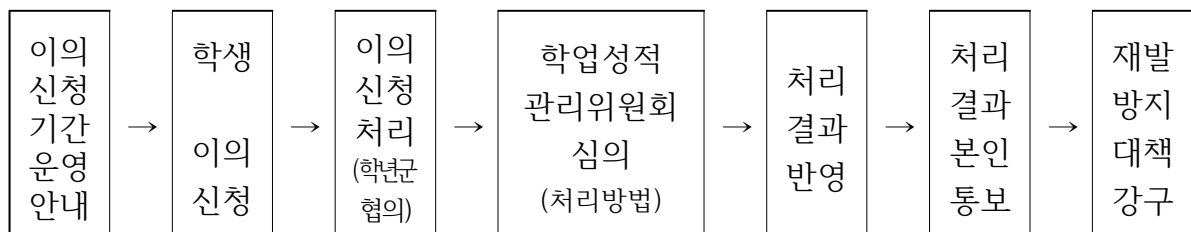
-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학습활동 성취정도, 수행평가 결과, 학습활동 수행상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한다.
- ② 평가 도구로 사용한 학생 평가 결과물과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은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4. 평가 계획 및 결과 제공

- ①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정보공시와 학급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학기별 1회(연 2회) 실시되는 성장나눔주간에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평가지와 활동자료, 형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통지는 학교 자체 형성평가 양식으로 학기별 1회(연 2회)가 정으로 발송한다.

5. 이의 신청

학교장은 학생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교직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기준 안내

1. 개요

- (검토배경) 홈페이지를 통한 교사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민청원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됨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일부 발췌(‘20.3.29.)
“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고 그래서 학교를 옮기면서 또 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 정보 공개 및 홈페이지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됨.

《 홈페이지 개인정보 공개 사례 》

- ◆ 학교 기관 홈페이지에 재직 중인 교사의 '직위, 성명, 담임반, 업무(담당과목), 학교연락처'를 안내
- ◆ 교사의 인사발령 사항(소속, 성명, 직위, 발령날짜, 과목)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

2. 검토내용 및 결과

- (정보공개 측면)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지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20.4.17.)
- 단,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 (출처: '19.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42p, 행안부)
※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관련사항 유권해석 의뢰 결과(‘20.4.17.)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정보(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동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A.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 가능할 것이며,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공시정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건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통계과, '20.4.6.)

- (개인정보보호 측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음 (행안부 개인정보정책과, '20.6.10.)

* 다른 법률에서 규정,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결론)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 교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유치·중등학교 교사 및 직원 대상(교장 및 교감은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등)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관 업무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와 직원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말함

☞ 우리 학교는 교사 및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니 교육 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전체 시간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5교시> 13:20~ 14:00		돌봄바이올린1 (돌봄전담2)		돌봄미술 1 (돌봄전담 2)	
<6교시> 14:10~ 14:50	돌봄한자 1,2	돌봄바이올린2 (돌봄전담1)	로봇과학 2 (돌봄전담 1)	돌봄미술 2 (돌봄전담 1)	방송댄스 1,2
	체육 3,4		영어 3,4	체육 3,4	컴퓨터 3,4
			컴퓨터 5,6		
<7교시> 15:00~ 15:40	돌봄전담 1,2	돌봄전담 1,2	로봇과학 1 (돌봄전담 2)	로봇과학1,2	돌봄전담 1, 2
	한자 3,4	바이올린 3,4	컴퓨터 3,4	미술 3,4	방송댄스 3,4
	체육 5,6	연계형돌봄 5,6	영어 5,6	체육 5,6	컴퓨터 5,6

* 수업 장소 : 돌봄은 모두 돌봄교실(돌봄방송댄스만 산빛관(다목적실))

체육 : 옥빛관(다목적실), 한자 : 컴퓨터실, 컴퓨터 : 컴퓨터실,
미술 : 생각교실, 영어 : 생각교실, 방송댄스 : 산빛관(다목적실)
3,4 바이올린 ; 도서관